

## 닛토호 다타라에서 볼 수 있는 오늘날의 제철

현재 일본 국내에서 유일하게 옛 방식 그대로 다타라 제철을 운영하고 있는 제철 시설이 '닛토호 다타라'입니다. 1977년, 닛토호 다타라는 30년 전에 명맥이 끊겼던 다타라 제철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이후 닛토호 다타라에서는 오늘날의 일본도 제작에 필수적인 옥강(玉鋼, 다마하가네)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옥강은 다타라 제철의 제련 방법으로도만 생산할 수 있는 고급 강철을 말합니다. 단단함과 유연함을 겸비한 옥강은 에도 시대(1603~1867) 이래, 일본도 제작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재료였습니다. 그러나 1800년대 후반에 이르러 서양에서 새로운 기술이 유입된 데다 철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다타라 제철소는 경쟁에서 밀려 1920년대에 들어 폐쇄되었습니다. 1933년에는 일시적으로 부활하면서 서양식 군사용 칼을 제조하기 위해 옥강 생산을 이어나갔지만,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이 끝나면서 다시 폐지되었습니다.

이후에 일본도가 미술품으로서 널리 평가받게 되면서 전 세계 애호가들이 수집하게 되었지만, 전후에 남아 있는 옥강은 고작 5~6t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미술도검보존협회(닛토호)가 오쿠이즈모에 남아 있는 다카도노(다타라 제철장)에 전통 방식의 점토제 다타라 용광로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다타라 제철의 기술은 오랜 세월 비공개로 엄중하게 보호되어 왔기 때문에, 닛토호는 다타라의 경험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중 무라게(조업을 총괄하는 기술책임자)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 바로 젊은 시절에 지방 제철로에서 근무했던 아베 요시조(1902~1995)와 구무라 간지(1903~1979)였습니다. 두 사람은 기하라 아키라(1935년 출생)와 와타나베 가쓰히코(1939년 출생)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전수했고, 이들 역시 제자를 들여 다타라 제철의 전통을 후대에 전했습니다.